

숨은그림찾기 < 67 >



찾(아)보(세)요 송사리, 망치, 열대어, 셔플록, 종이배, 바늘, 펜촉, 알파벳 A자, 돛

왜 나랑 결혼했어?

신혼부부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고 있었다. 이때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가, 자기는 내가 저 17번째쯤 색시해서 결혼했어? 아님 22번째쯤 청순한 외모 때문에 결혼했어?" 이 말에 남편은 "어, 나는 자기의 그런 유머감각 때문에 결혼했지."



지나주 정답

담배피이프, 커터칼, 열대어, 펜촉, 바늘, 셔플록, 다리미, 칫솔, 송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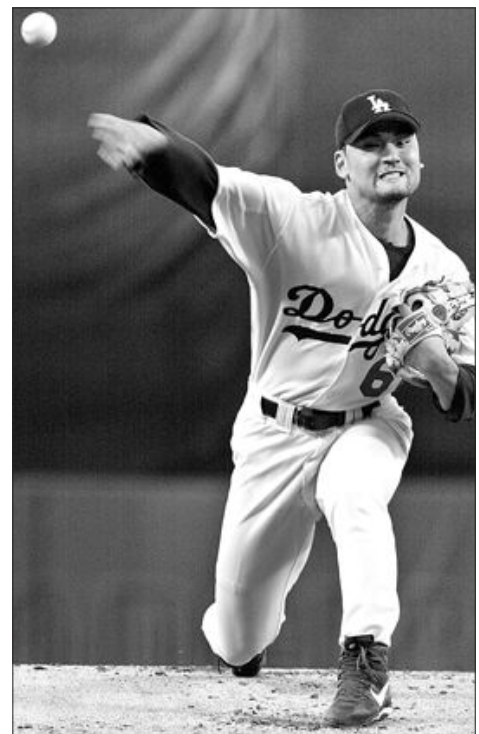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내선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홍영표 <나주시 송월동> 박정미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4월 7일 '코리안 특급' 박찬호 메이저리그 첫승

미국 시카고 리글리구장. 1914년에 건립, 보스턴 레드삭스 파크, 디트로이트의 타이거 스타디움에 이어 메이저리그 구장 가운데 3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메이저리그의 메카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인들에게 자존심이 서려있는 곳이다. 담쟁이 덩굴 외야펜스는 이곳 명물이다.
지난 1996년 4월 7일 이 구장의 주인공은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었다.
2회 4번 타자 새미 소사를 삼진으로 잡은 뒤 5회까지 4이닝동안 무실점, 시속 154km의 강속구로 삼진 7개를 잡았다. 다저스의 3대 1 승리의 일등 공신.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첫 승이었다. 지난 1994년 다저스에 입단한 뒤 메이저리그까지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가 이뤄진 것으로,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었다. 당시 언론은 '한국 투수 세계에 '우뚝', '한국 야구 자존심을 세웠다'는 제목을 달아 크게 보도했다.
그는 이후 1997년(14승)·1998년(15승)·1999년(13승)·2000년(18승)·2001년(15승)까지 5시즌 동안 연속 10승 이상을 올렸다.
2000년에는 동양인 최다승(노모 히데오 16승) 기록도 갱고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후보에도 올랐다.
90년대 후반 IMF로 실의에 빠졌던 국민들이 이 시기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특유의 하이 키킹으로 시원한 강속구를 뿌리는 장면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고, 미혼 여성들의 최고 신랑감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민들에게 '영웅'이었다.
힘들 때도 있었다. 2002 시즌 텍사스로 옮긴 뒤 허리 부상으로 부진에 빠졌고, "끝났다"는 싸늘한 시선 속에 이곳저곳으로 팀을 옮기며 국내 팬들조차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메츠로 옮긴 최근에는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뉴올리언스로 강등됐다.
지난 95년 다저스 시절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게 된 것.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는 통산 113승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100승 이상 투수는 7%인 것을 감안하면 특급 코리안 메이저리거임을 틀림없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 박찬호가 다시 한번 한국 야구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지켜봐야 할 때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강속구를 뿌리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뉴스퀴즈

58.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이몽구(內蒙古) 등에서 발원한 이 현상으로 지난 1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① 황사 ② 온난화 ③ 엘니뇨 ④ 라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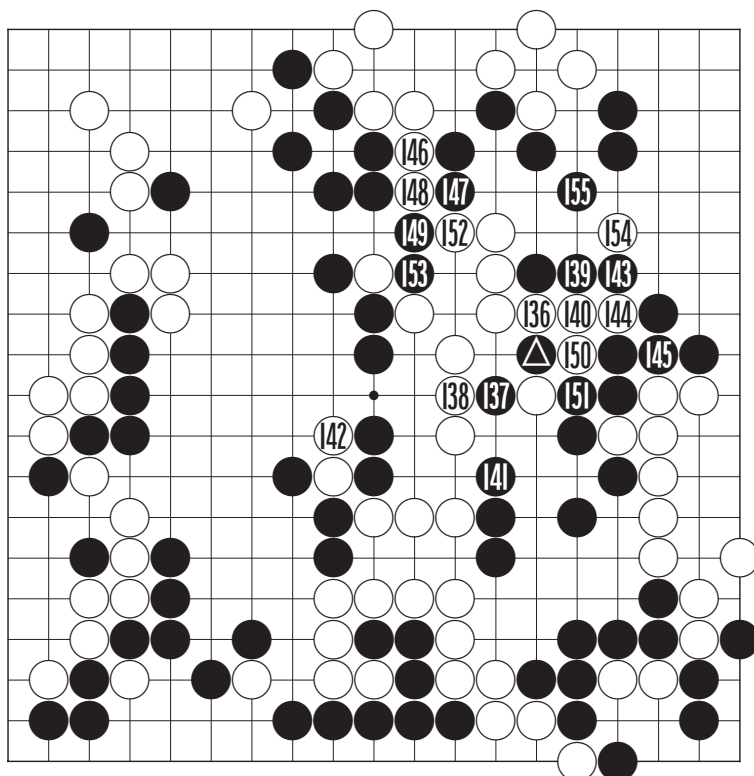
참어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내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내선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2월 17일 戊辰)

- 36년생 큰 덕은 자선에 있다. 48년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신생한다. 60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72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84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하니 적선으로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08, 43
37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 49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린다. 61년생 사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73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사방이 소란하다. 85년생 매사에 조심할 때에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 있지만 큰 손해는 안 본다. 행운의 숫자 : 17, 37
38년생 융통성이나니 결과는 반반이다. 50년생 허비가 억울리는 하루니 신력을 숙고하라. 62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 74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주나 배틀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07, 43
39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51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라. 63년생 사기꾼이 달려드니 주변을 정리하라. 7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 03, 32
40년생 仲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52년생 전회유복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 64년생 가세가 시끄럽다 인자권을 보여주라. 76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니 준비를 잘 하라. 행운의 숫자 : 21, 39
41년생 여유로운 하루로다. 53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리라. 65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77년생 욕심을 버려라.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5, 45
42년생 새 문서의 잘못으로 눈물이 날 수가 있다. 54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가속화 된다. 66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8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신심을 잃고도 격정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3, 41
43년생 비정함 고충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5년생 부부사이에 재특색이 다시 솟는다. 67년생 가정과 親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79년생 짐에 속해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29
44년생 불평등이 발생할 수다. 56년생 이해있는 선금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68년생 부부사이에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8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01, 40
45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자리한다. 57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어라. 69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81년생 침착하게 사행하면 오히려 배려하라. 행운의 숫자 : 09, 39
46년생 자녀 집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58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흥분을 조심하라. 70년생 평상심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82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 14, 42
47년생 불행하는 형상이고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수선다. 59년생 어리석은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71년생 재사가 순조롭게 신생한다. 83년생 융합할 만한 주변이 매교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12, 3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featuring a coupl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1기 SK가스배 프로10결전 대마가 잡히다 10보(136~155)
이재용 5단 백 김수용 6단 흑

김수용 6단의 흑 ▲가 강력한 태클로, 태클을 받은 백 대마가 사경을 헤메고 있다. 상변에서 손해를 보며 백 대마를 잡으러 갈 때 이미 이 대마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5단은 고풍스런 표정으로 136으로 찢어 보았으나 흑 137이 또 좋은 수순으로, 선수이며 침착하게 139로 늘었다. "삶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수이다.
지나는 길에 144까지 두어 보았을 수가 있다기 보다는 대마의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보인다. 백 146 쪽을 다시 찢어 보았으나 이곳도 역시 흑 147로 늘고 149로 막은 수가 정확해서 아무 수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재용 5단으로서는 이런 초대마가 잡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상대는 후배이기도 하려니와 지방 연구생 출신으로 한편으로는 조금 쉽게 생각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순이 진행되면서는 후배에게 지면 안된다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흑 155가 놓여서는 만사휴의, 이재용 5단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을 던지고 만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이창호, 바둑왕전 8강 진출

이창호 9단과 이영구 6단이 지난 2일 KBS신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6기 KBS바둑왕전 승자조 16강전에서 각각 홍민표 5단과 윤현성 8단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이창호 9단은 박정상 9단-윤현성 8단의 대국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며 이영구 6단은 조함승 9단과 격돌한다.
이창호 9단은 KBS바둑왕전에서 모두 8회 우승과 4회의 준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이영구 6단은 지난해 왕위전, SK가스배에서 준우승했다. 바둑왕전 우승, 준우승 기사는 2008년 열리는 TV아시아 선수권전에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Look before you leap), Japanese (ちょっときつくない?), Chinese (我们去旅行吧), and Korean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title, a question, and a list of multiple-choice answers.